

한국 남성이 미 방송에 출연하게 된 사연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평범한 한국 남성의 사연이 흥미를 끌고 있다.

24일 미국 케이블방송 TLC의 '90일의 약혼' (90 DAY FIANCÉ)에는 미국인 여성과 약혼한 한국인 남성 이지훈(29)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미국은 자국인과 약혼한 외국인에게 K-1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하는 대신 90일 안에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90일의 약혼'은 이런 상황에 처한 국제 커플을 조명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중고후대전화 매매업을 하고 있는 이 씨는 작년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미국에 사는 데빈 클렉(22)이라는 여성을 알게 됐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이씨는 3개월 간 매일 클렉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마침내 8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직접 미국을 방문했다.

이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 전 사실 좀 무서웠다. 장기밀매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클렉에 대한 믿음 하나로 유타주 솔트



레이크시티까지 간 이씨는 2주간 그곳에 머물며 클렉과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귀국 이틀 전, 클렉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90일의 약혼'에 출연한 클렉은 "지훈은 예정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를 다시 못 보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이씨는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두 사람은 약혼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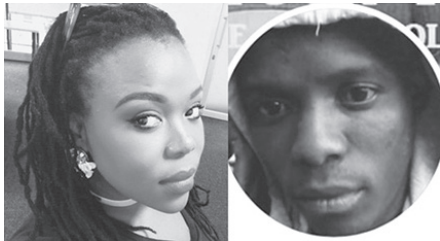
하지만 이 씨의 부모님은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이 3살 된 딸을 둔 싱글맘인 미국인 여성과 약혼을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클렉을 본 부모님이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진 않았다."고 밝혔다. 데빈 역시 "한국에서 부모의 축복은 결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가자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지난 5월에 태어났을 아기는 건강한지 등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TLC에서 방송되고 있다.

27년 전 헤어진 오빠, 하루 만에 찾은 동생

27년 전 헤어진 오빠를 찾는 데 단 하루면 충분했다.

영국 매체 메트로는 지난 28일 태어나기도 전에 헤어져 얼굴도 모르는 오빠를 SNS로 하루 만에 찾게 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오빠를 찾는 사바의 사연을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발 빠르게 사바의 글을 리트윗했고, 4,500여 건의 공유 끝에 오빠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게 현실이 맞는지 남자친구에게 계속 확인했다. 감정이 북받쳐 아침 내내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오빠는 그녀의 집과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거주하는 사벨리 시웨 사니 사바(27)는 태어나기도 전에 오빠와 헤어졌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오빠는 아버지를 따라갔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임신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입을 통해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바는 본적 없는 오빠를 늘 그리워했다. 그러다 문득 소셜미디어(SNS)의 힘을 빌려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지난 24일 오후 5시경 트위터에 오빠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27년 전 헤어진 오빠를 찾아 나선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된 것.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진

하지만 생면부지의 오빠와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바는 "상상 속에서나 만나던 오빠를 실제로 볼 생각을 하니 많이 긴장됐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약속 장소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남자친구가 오빠를 데리고 집으로 온 뒤에야 만날 수 있었다. 사바는 "몇 초간 서로를 응시하던 우리는 서로가 많이 닮았다는 걸 알아챘고 열싸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사진 한 장이 불러온 행운



맥도널드 매장 의자에서 잠을 자던 청년에게 닥친 행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CNN은 조지아주 파예트카운티의 맥도널드 매장에서 촬영된 사진에 얽힌 사연을 보도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맥도널드 매장의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한 흑인 청년이다. 이 사진은 얼마 전 이 매장을 찾은 한 여성 고객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사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성은 "이같은 장면을 보는 것이 내가 이 동네를 떠나도 싶은 이유"라면서 "매장 직원에게 '한 남자가 누워 자고있다'고 말했으나 직원은 '알고있다 괜찮다'고만 대답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게시물은 '맥도널드 매장에서 자는 노숙자'로 포장돼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그러나 사진 속 남자는 노숙자가 아니라 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사이먼 차일즈(21)로 확인됐다.

차일즈는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다. 사진이 촬영될 당시 그는 야간 근무교대를 위해 출근했으며 근무 시작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시 매장 좌석에서 누워 눈을 붙였다. 이런 상황을 사진을 촬영한 여성을 알지 못하고 그를 노숙자로 오해한 것이다.

사이먼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이먼의 사연이 알려지자 도움의 손길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모금은 물론 아들을 위한 기저귀와 옷가지 제공 또 어떤 사람은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호텔방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 면접 기회도 들어왔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렌트와 미용까지 해주겠다는 연락도 이어졌다.

사이먼은 "지역 사회에서 나를 이렇게나 많이 도와 줄 것이라 생각치 못했다."면서 "나는 더이상 홈리스가 아니다. 이게 다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 덕분"이라며 웃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